

제 4 장

기 업 개 혁

- ▶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 ▶ 강한 기업 만드는 기업개혁

포춘지의 글로벌 500대기업 선정

- IMF관리체제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련을 주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특히 건디기 어려운 정도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외부의 경쟁 압력도 압력이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재촉은 숨들릴 틈도 주지 않는다. 포춘지가 선정한 매출액 기준으로 본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1997년에는 13개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에는 12개로 줄었고 올해에는 대우사태와 구조조정 빅딜로 9개로 줄었다.
 - (주)삼성물산이 매출액 288억 달러로 102위를 마크했고, (주)SK가 281억 달러로 103위이다. (주)현대 종합상사(140위), 삼성전자(주)(270위), 삼성생명(주)(285위), LG상사(주)(324위), 한국전력(주)(444위), 포항종합제철(주)(460위), LG전자(주)(470위)가 포함되어 있다.
 - 글로벌 대기업 수만 12개에서 9개로 준 게 아니라 매출액 평균도 26%가 줄었다. 1998년에 18위를 마크했던(주) 대우가 빠졌다.
- 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500대기업 리스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이다. 이제 중국에서도 기업공개는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대기업의 주인이니 다수기업의 리스팅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 정유회사인 Sinopec (73위),중국산업은행(160위), 중국은행(171위), 무역업으로 등록된 Sinochem(304위)과 COFCO(362위), 중국석유공사(485위), 모두 6개회사가 1999년 글로벌 500대기업에 들었다.
- 세계의 글로벌 500대기업은 크게 세 무리로 나눌 수 있다. 제너럴모터스 (1위)를 포함한 미국 대기업 수가 185개, 미쓰이 종합상사(5위)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이 100개, 그리고 1998년 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Chrysler를 합병해서 만든 독일의 DaimlerChrysler를 비롯한 유럽계 대기업 수는 170개이다.
 - 1998년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운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기업들은 매출액이 6.4% 신장했고 수익률은 13%가 올랐다. 유럽전체의 경제성장률이 1.5%미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럽통합 이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 이익 실현이 가능해 졌고, 단일통화인 유로가 출범했고, 유럽의 기업들이 변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과감한 인수합병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흥 공업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5년에 글로벌500대 149개나 되던 일본기업(미국기업은151개)이 1996년에는 141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에는 126개, 작년에는 115개, 그리고 이제는 100개로 줄어 5년 동안에 1/3이 날아갔다.
 - 한 해안에 평균 매출액도 14%가 줄어 100대기업의 평균손실이 기업 당 9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 나라의 경제전략이 때를 놓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을 선택했을 때 그 나라의 기업이 입게될 손실과 대가는 엄청나다.

[경쟁력표 14]

1999년도 국가별 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수 및 지난 5년간 변화추이

| 순위 | 국가명 | 1999년 | 1998년 | 1997년 | 1996년 | 1995년 |
|----|-------|-------|-------|-------|-------|-------|
| 1 | 미국 | 185 | 175 | 162 | 153 | 151 |
| 2 | 일본 | 100 | 115 | 126 | 141 | 149 |
| 3 | 독일 | 42 | 42 | 41 | 40 | 44 |
| 4 | 영국 | 39 | 39 | 42 | 42 | 40 |
| 5 | 프랑스 | 39 | 35 | 35 | 33 | 33 |
| 6 | 캐나다 | 12 | 8 | 6 | 6 | 5 |
| 7 | 스위스 | 11 | 12 | 14 | 16 | 14 |
| 8 | 이탈리아 | 11 | 13 | 13 | 12 | 11 |
| 9 | 한국 | 9 | 12 | 13 | 12 | 8 |
| 10 | 네덜란드 | 8 | 9 | 9 | 9 | 8 |
| 11 | 호주 | 7 | 7 | 5 | 4 | 3 |
| 12 | 스페인 | 5 | 5 | 5 | 6 | 6 |
| 13 | 중국 | 6 | 3 | 3 | 2 | 3 |
| 14 | 스웨덴 | 4 | 4 | 4 | 3 | 3 |
| 15 | 핀란드 | 4 | 2 | 1 | 2 | 1 |
| 16 | 벨지움 | 3 | 4 | 4 | 6 | 4 |
| 17 | 브라질 | 3 | 5 | 5 | 4 | 2 |
| 18 | 노르웨이 | 3 | 2 | 2 | 2 | 2 |
| 19 | 대만 | 1 | 2 | 1 | 1 | 2 |
| 20 | 홍콩 | 1 | 1 | 2 | | 1 |
| 21 | 멕시코 | 1 | 1 | 1 | 1 | 2 |
| 22 | 베네주엘라 | 1 | 1 | 1 | 1 | 1 |
| 23 | 말레이시아 | 1 | 1 | 1 | 0 | 0 |
| 24 | 러시아 | 1 | 1 | 1 | 0 | 0 |
| 25 | 인도 | 1 | 0 | 1 | 1 | 1 |
| 26 | 룩셈불그 | 1 | 0 | 0 | 0 | 0 |
| 27 | 터키 | 0 | 0 | 1 | 1 | 1 |
| 28 | 오스트리아 | 0 | 0 | 0 | 0 | 1 |

자료 출처 : Fortune, 「Global 5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9년도 글로벌 한국대기업 : (주)삼성물산(288억달러 매출 세계 102위), (주)선경 (281억달러 매출, 세계 103위), (주)현대종합상사(244억달러 매출, 140위), 삼성전자(주)(184억달러, 207위), 삼성생명(주)(144억달러, 285위), LG상사(주)(134억달러, 324위), 한국전력(주)(101억달러, 444위), 포항종합제철(주), 97억달러 460위), LG전자 (94억달러, 470위)

[경쟁력표 15]

기업개혁관련 IMD평가 Management(기업경영)부문 경쟁력

| 항 목 | 한 국 | 1 위 | 2 위 | 3 위 | 4 위 | 5 위 |
|--|------------------|----------------|-----------------|----------------|-----------------|----------------|
| 기업경영 부문 종합순위 | 42위 | 미국 | 네덜란드 | 핀란드 | 싱가폴 | 홍콩 |
| 생산성 분야 | 32위 | 이스라엘 | 벨기에 | 미국 | 룩셈블그 | 이탈리아 |
| 6.01 총생산성(실질구매력 기준)(PPP) (’98)(\$, 구매력기준 1인당 GDP) | 39위 32,431 | 룩셈블그 70,143 | 벨기에 64,684 | 미국 61,584 | 이탈리아 60,085 | 아일랜드 59,778 |
| 6.02 총생산성 (’98)(\$, 근로자1인당 GDP 생산액) | (순위없음) 15,102 | 이스라엘 46,540 | 벨기에 66,520 | 미국 64,325 | 룩셈블그 86,186 | 이탈리아 57,828 |
| 6.03 실질 총생산성 증가율(PPP) (’98)(%, 종업원1인당 실질 GDP증가율) | 16위 5.86 | 터어키 77.60 | 헝가리 19.36 | 베네주엘라 18.87 | 멕시코 18.47 | 남아공화국 17.00 |
| 6.04 실질 총생산성 증가율 (’98)(%, 종업원1인당 실질 GDP증가율) | (순위없음) 0.91 | 이스라엘 -0.65 | 벨기에 1.58 | 미국 1.76 | 룩셈블그 -2.88 | 이탈리아 1.05 |
| 6.05 노동생산성(실질구매력 기준) (’98)(%, 종업원1인당 실질 GDP증가율) | 31위 13.18 | 룩셈블그 38.58 | 벨기에 36.20 | 프랑스 33.66 | 이탈리아 31.99 | 아일랜드 31.33 |
| 6.06 노동생산성 (’98)(\$, 종업원1인당 시간당 GDP) | (순위없음) 6.70 | 이스라엘 21.87 | 벨기에 38.25 | 미국 33.57 | 룩셈블그 48.80 | 이탈리아 31.76 |
| 6.07 농업생산성(PPP) (’98)(\$, 농업종사자1인당 GDP(PPP)) | 30위 14,315 | 이스라엘 93,451 | 아이슬랜드 60,930 | 캐나다 57,260 | 영국 53,868 | 핀란드 43,660 |
| 6.08 농업생산성 (’98)(\$, 농업종사자1인당 GDP(PPP)) | (순위없음) 6,878 | 이스라엘 86,605 | 벨기에 25,858 | 미국 43,269 | 룩셈블그 23,386 | 이탈리아 26,764 |
| 6.09 공업생산성(PPP) (’98)(\$, 근로자1인당 GDP(PPP)) | 22위 50,273 | 이스라엘 73,042 | 벨기에 70,646 | 미국 67,359 | 노르웨이 62,612 | 핀란드 62,354 |
| 6.10 공업생산성 (’98)(\$, 근로자1인당 GDP(PPP)) | (순위없음) 24,155 | 이스라엘 67,692 | 벨기에 73,718 | 미국 70,357 | 룩셈블그 63,987 | 이탈리아 58,500 |
| 6.11 서비스업생산성(PPP) (’98)(\$, 서비스업종사자1인당 GDP(PPP)) | 33위 26,742 | 아일랜드 83,119 | 룩셈블그 70,008 | 홍콩 68,427 | 이탈리아 63,104 | 벨기에 61,640 |
| 6.12 서비스업생산성 (’98)(\$, 서비스업종사자1인당 GDP(PPP)) | (순위없음) 12,849 | 이스라엘 36,272 | 벨기에 64,321 | 미국 63,222 | 룩셈블그 87,276 | 이탈리아 60,734 |
| 노동비용 분야 | 8위 | 러시아 | 헝가리 | 중국 | 인도네시아 | 체코공화국 |
| 6.13 임금수준 (’98)(\$, 제조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 13위 4.89 | 인도네시아 0.09 | 러시아 1.15 | 헝가리 1.40 | 멕시코 1.52 | 체코공화국 1.64 |
| 6.14 제조업단위 노동비용 증가율 (’98)(%, 전년대비 변화율) | 1위 -8.50 | 한국 -8.50 | 콜롬비아 -4.75 | 오스트리아 -3.50 | 스웨덴 -3.00 | 아일랜드 -2.50 |
| 6.15 기업부문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98)(%, 전년대비 변화율) | (순위없음) -5.80 | 러시아 2.50 | 헝가리 14.40 | 중국 3.90 | 인도네시아 - | 체코공화국 10.80 |
| 6.16 전문서비스직 연봉(’97)(\$) | 28위 25,700 | 중국 4,800 | 인도 2,600 | 헝가리 4,800 | 러시아 6,200 | 폴란드 4,900 |
| - 은행원 | 40,300 | 3,600 | 6,600 | 7,800 | 7,000 | 7,800 |
| - 기업체 부서장 | 22,800 | 1,450 | 1,900 | 2,600 | 900 | 3,100 |
| - 초등학교 교사 | 20,600 | 2,700 | 2,900 | 2,700 | 4,700 | 3,800 |
| - 비서 | | | | | | |
| 6.17 관리임원 연봉(’98)(\$) | 8위 74,340 | 러시아 9,828 | 중국 45,175 | 헝가리 44,006 | 인도네시아 47,815 | 인도 60,787 |
| - CEO | 31,739 | 4,052 | 19,084 | 21,688 | 19,463 | 23,995 |
| - 엔지니어 | 54,871 | 9,828 | 33,289 | 32,439 | 35,811 | 43,714 |
| - 제조업체 임원 | 43,436 | 9,690 | 26,634 | 26,203 | 28,846 | 35,789 |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경쟁력표 15] (계속)

| 기업활동 성과 분야 | 43위 | 미국 | 일본 | 독일 | 스위스 | 홍콩 |
|---|--------|--------|--------|--------|--------|--------|
| 6.18 기업규모(대기업 수) (‘98)개, 세계 500대기업 보유 수) | 7위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 | 12 | 175 | 112 | 42 | 39 | 35 |
| 6.19 가격/품질비율(국내제품이 외국제품보다 더 나은 정도)* | 44위 | 일본 | 독일 | 미국 | 뉴질랜드 | 네덜란드 |
| | 3.96 | 6.85 | 6.79 | 6.72 | 6.54 | 6.47 |
| 6.20 광고비 지출 (‘97)(\$, 1인당 지출액) | 24위 | 홍콩 | 미국 | 스위스 | 일본 | 영국 |
| | 114.35 | 405.36 | 393.71 | 339.92 | 283.00 | 266.20 |
| 6.21 기업신뢰도(기업경영진이 일반인 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도)* | 45위 | 싱가폴 | 핀란드 | 아이슬랜드 | 덴마크 | 필리핀 |
| | 3.98 | 7.73 | 7.57 | 7.38 | 7.24 | 7.19 |
| 6.22 기업이사진이 기업관련 부당한 관행을 막아 주는 정도* | 45위 | 핀란드 | 싱가폴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캐나다 |
| | 3.611 | 7.541 | 7.455 | 7.395 | 7.286 | 7.246 |
| 기업경영 효율 분야 | 46위 | 네덜란드 | 싱가폴 | 홍콩 | 스위스 | 스웨덴 |
| 6.23 회사설립이 쉬운 정도* | 43위 | 홍콩 | 대만 | 헝가리 | 미국 | 이스라엘 |
| | 5.59 | 8.95 | 8.64 | 8.50 | 8.44 | 8.25 |
| 6.24 유능한 고급경영자를 노동시장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 42위 | 필리핀 | 미국 | 칠레 | 캐나다 | 인도 |
| | 4.59 | 8.29 | 7.98 | 7.87 | 7.83 | 7.82 |
| 6.25 경영진이 국제업무와 해외 근무경험이 충분한 정도* | 40위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홍콩 | 스위스 | 스웨덴 |
| | 4.00 | 7.43 | 7.08 | 7.02 | 6.95 | 6.78 |
| 6.26 국내 경영진이 해외근무 경영진과 경력수준이 같은 정도* | 46위 | 칠레 | 네덜란드 |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
| | 4.06 | 7.93 | 7.81 | 7.72 | 7.65 | 7.57 |
| 6.27 주주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정도* | 44위 | 캐나다 | 핀란드 | 미국 | 스웨덴 | 싱가폴 |
| | 3.20 | 7.46 | 7.45 | 7.44 | 7.13 | 7.06 |
| 6.28 노사분규 (‘95-’97 평균) (일수, 인구천명당 분규로 인한 상실 근무일수) | 25위 | 싱가폴 | 룩셈부르크 | 콜롬비아 | 말레이시아 | 홍콩 |
| | 12.69 | 0.00 | 0.00 | 0.07 | 0.15 | 0.24 |
| 6.29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 | 46위 | 싱가폴 | 스위스 | 일본 | 뉴질랜드 | 덴마크 |
| | 3.61 | 8.85 | 7.95 | 7.70 | 7.69 | 7.67 |
| 6.30 종업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인지하는 정도* | 36위 | 일본 | 싱가폴 | 핀란드 | 덴마크 | 스위스 |
| | 5.04 | 7.38 | 7.36 | 7.26 | 7.23 | 7.16 |
| 6.31 종업원들의 훈련이 회사 안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정도* | 29위 | 핀란드 | 덴마크 | 싱가폴 | 일본 | 네덜란드 |
| | 5.44 | 7.81 | 7.69 | 7.58 | 7.32 | 7.32 |
| 기업문화 분야 | 43위 | 네덜란드 | 미국 | 핀란드 | 덴마크 | 대만 |
| 6.32 일처리 공정관리(품질, 시판 시점 등)이 강조되는 정도* | 38위 | 싱가폴 | 핀란드 | 미국 | 스웨덴 | 대만 |
| | 4.86 | 7.76 | 7.70 | 7.63 | 7.60 | 7.56 |
| 6.33 회사에서 고객만족이 중요 하게 여겨지는 정도* | 6.954 | 8.220 | 7.791 | 7.772 | 7.705 | 7.675 |
| 6.34 동태적인 판매관리문화가 보편화된 정도* | 5.16 | 8.80 | 8.21 | 7.93 | 7.71 | 7.44 |
| 6.35 경영자들이 혁신의식을 가진 정도* | 3.96 | 7.61 | 7.16 | 7.11 | 7.09 | 6.85 |
| 6.36 경영자들이 그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무시하지 않는 정도* | 4.019 | 7.544 | 7.213 | 7.190 | 7.136 | 7.093 |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 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 경쟁력 제안 ●

강한 기업 만드는 기업개혁

첫째, 종업원 만족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근로자 개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축적을 유인하는 보상체계가 매우 부실하다.
- 현행 상여금제도도 성과에 관계없는 고정급이 되어 동기부여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 보상체계도 근로자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 분석이 가능한 개인 인센티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생산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해 기업, 은행, NGO, 연구소, 정부 등 모든 지식정보 학습조직에 성과중심 개인 인센티브체계를 실시하자.

둘째, 적극적 외자유치를 위해 법치주의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 IMF가 우리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 동안 우리기업의 가부장적 경영형태는 노사갈등을 심화시켰고 기업 내부수준의 개혁파트너로 노조의 역할을 정립시키지 못했으며 상위노조의 정치화는 노조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업무효율도 높이고 종업원 복지도 높이는, 공동선을 극대화하는, 원칙중심 법치주의 노사관계를 정립하자.
-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과잉투자 부실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합병 등 투자개방에 대비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확립하자. 주주 경영진 근로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노사위원회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열린 경영을 실천하자.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첨단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를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 지방 정보화수준이 낮아 지방에는 첨단산업이 부족하고 지방기업의 육성기반이 취약하다.
- IMF를 겪으면서 지방의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되었고 효율적인 지방주도 지역개발계획이 부족하다.
- 지방정보화단지를 육성하여 벤처기업의 태동, 발육, 성장, 발전의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지방첨단 사이언스파크 육성전략을 수립하자.
- 복잡하고 산발적인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을 지방주도 벤처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

넷째, 국내 게임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해 게임지원센터 육성 및 사이버 올림픽대회 개최를 제안한다

- 우리 나라에서 많은 게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일본 등 게임 선진국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이는 효율적 게임 프로그램 개발기획과 시장정보의 부족, 그리고 분화된 정부 담당부처와 장기적 계획의 부재에 기인한다.
- 따라서 시장조사와 조직적인 개발, 다른 부가상품과의 연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조직으로 일원화된 게임개발 지원부서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또한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속한 공간에서 3D 캐릭터만을 조정하는 스포츠 게임을 개발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올림픽을 개최하자.
- 스타크래프트를 능가하는 게임을 개발하여 돈도 벌고 국위도 선양하자.

다섯째, 동북아 국제 물류의 중심지화를 위해 물류메카코리아(Trans-Mecca Korea)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지리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국제물류의 핵심이 될 충분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 국제물류로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한국이 이제는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하는 매력 없는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2010년까지 동양최대의 물류 요충국가로 도약하자.
- 기본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유인을 위해 정부의 규제철폐를 가속화하자. 물류금융정보화 사업을 통괄 추진할 물류메카코리아(Trans-Mecca Korea)를 설립하자.